

계 열 문 항 1

〈가〉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정의론』에서 ‘네 가지 사회 체제’를 제시했다. 이를 교육과 연관하여 해석해 보면, 교육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전망할 수 있다. ‘자연적 귀족 체제(natural aristocracy)’는 재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혈통을 기반으로 하는 세습적 특정 신분에만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계기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체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자연적 자유 체제(natural liberty)’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자유 시장 논리에 입각한 효율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 체제에 해당한다. 이 체제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liberal equality)’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조건에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추가한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됨’을 ‘공정한 기회균등’으로 해석하는 이 체제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가정환경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제도 등을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체제는 여전히 자유 시장 논리에 토대를 둔 ‘효율성 원칙’과 결합하여 있으므로, 선천적 지능이나 재능과 같은 타고난 우연성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롤스에 의하면 설사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의 타고난 재능과 그 재능을 계발하려는 노력에서조차도 우연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democratic equality)’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 원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연성에 의해 산출되는 이익의 불평등을 조정하는 방식, 즉 차등 원칙을 통한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는 ‘효율성 원칙’에 기초하여 주로 절차적 공정성만을 추구하므로, 우연성으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데 비해,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차등 원칙을 적용한다. ‘차등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만 정당화된다는 원칙이다.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통해 경쟁에서 초래된 교육의 성과가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과도하게 전이되어 불평등을 초래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사회 제도를 요구한다.

〈나〉

제임스 코넛트(James B. Conant)가 본 1940년대 미국 사회는 세습 상류층이 행세하는 세상이었다. 그는 세습 엘리트 체제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상에 반한다고 확신했다. 그는 세습 엘리트 체제가 무너지고 능력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 시도는 ‘능력주의 쿠데타’라고 불릴 수 있다.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명문대학이 ‘가장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하여 사회 지도자로 만드는 능력주의 기관’이 되어야 했다. 코넛트는 실력 있는 고등학생들을 발굴하여 엘리트 대학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서부 공립학교에 ‘하버드 장학금’을 마련하고, 타고난 지능만을 보고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했다. 학업성취도평가(SAT)라고 불리는 이 선발시험은 1차 세계대전 동안 미 육군에서 시행한 아이큐 테스트와 유사한 것이었다. 코넛트의 장학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였고, 학업성취도평가는 결국 전국의 대학 입학에 결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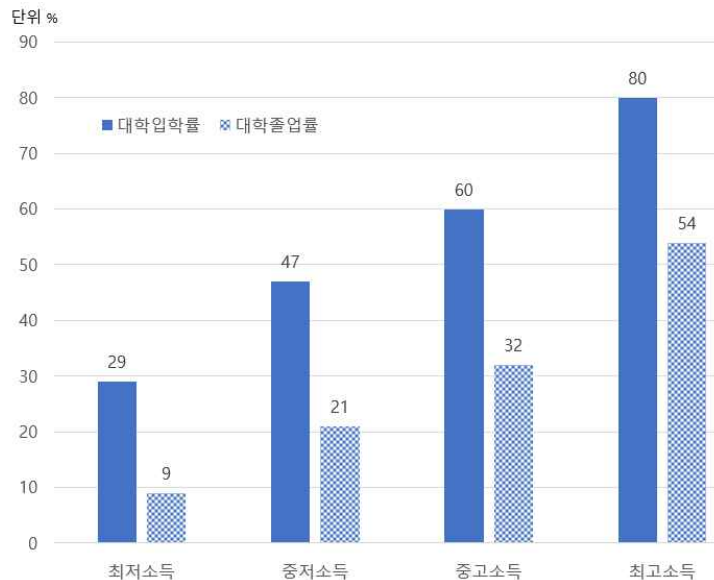
하버드 대학교를 능력주의 기관으로 바꾸려는 코넬트의 시도는 미국 사회를 능력주의 원리에 기반해 재구성하려는 야심 찬 기획의 일부였다. 코넬트는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한 교육’을 제시하면서, ‘세습 귀족 정의 발전’에 의해 위협받은 ‘기회균등의 원리’를 되찾고자 했다. 코넬트는 프레데릭 터너(Frederick J. Turner)가 처음 사용한 ‘사회 이동성’이라는 말을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이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청년들이 부모의 신분이나 경제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계발할 수 있다면, 사회 이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며, 교육이 사회 이동성의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

<표> 가계 소득수준별 SAT 성적 분포(미국, 2010년)

소득 규모	독해 점수	수학 점수	작문 점수
2만 달러 미만	437	460	432
2만 - 4만 달러	465	479	455
4만 - 6만 달러	490	500	478
6만 - 8만 달러	504	514	492
8만 - 10만 달러	518	529	505
10만 - 12만 달러	528	541	518
12만 - 14만 달러	533	546	523
14만 - 16만 달러	540	554	531
16만 - 20만 달러	547	561	540
20만 달러 초과	568	586	567

<그림> 미국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학 입학률과 졸업률



* 1979~1982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25세까지 졸업한 경우를 반영함

1-1. <가>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관점에서 <나>와 <다>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300±30자)

1-2. <가>의 논지와 <다>를 활용하여 <나>의 ‘능력주의 쿠데타’를 평가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터부는 대부분의 야만족들에 있어서 특별히 지독한 것이다. 이것은 상을 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마오리족의 경우에 시체를 다루거나 시체를 무덤에 안치시키는 일을 한 사람은 누구나 극히 부정(不淨)하여, 다른 이웃들과의 왕래가 거의 단절된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웃에 의해 배척된다. 그는 어떤 집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접할 수 없다. 그가 접한 모든 것은 모두 것처럼 부정해진다. 그는 자기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을 수조차 없다. 그의 손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손이 닿은 음식물은 못 쓰게 된다. 사람들이 음식을 바닥에 놓아두면, 부정한 사람은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해 입술과 이를 사용하여 먹어야 한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여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사람은 팔을 가능한 한 쭉 펴서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을 한다. 그렇게 조심해도 이 도움을 준 사람 역시 도움받은 사람만큼 심하지는 않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제약들을 감수하여야 한다.

인구가 많은 마을에는 거의 어디에나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간혹 배풀어지는 자선의 덕으로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마을마다 있었다. 이 사람만이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치른 사람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었다. 상을 치른 사람이 괴로운 격리 기간이 끝나 다시 마을로 들어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그릇들을 모두 깨버리고 입었던 옷들도 모두 없애야 한다.

〈나〉

주술(呪術)은 두 대상이 지닌 관념적 연관을 물리적 연관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이 특징을 두 종류의 주술 행위들에 비추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적을 해치기 위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주술 절차들 중의 하나는 임의의 재료로 적의 모상(模像)을 만드는 것이다. 이 모상에 해를 끼치면, 미움의 대상이 되는 본상(本像)에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모상의 어떤 신체 부위를 손상시키면 본상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위가 병이 든다. 이 같은 방식을 지닌 또 다른 예로 원시 민족들 사이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보다 발전된 문명 단계의 신화와 의례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한 주술 행위를 들 수 있다. 그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주술이다. 이들은 비를 흉내내거나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나 폭풍을 모방함으로써 비를 만들려고 한다. 일본 아이누족의 경우에 한쪽 편 사람들은 채로 물을 뿌리고 다른 편 사람들은 사방에 돛과 노를 달고서 마을과 밭 주변을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리듯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비를 내리게 한다.

두 번째 부류의 주술적 행위들에서는 위와 같은 원리가 고려되지 않는 대신 다른 원리가 작용한다. 일부 주술 집단의 경우 적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해 있던 갖가지 물건들을 활용한다. 적의 머리카락, 손톱, 또는 입던 옷의 일부라도 손에 넣어서 이것에 해를 가한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마치 그 인물을 직접 장악한 것처럼 된다. 그의 소유물에 가해진 해는 그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름을 활용한 주술도 마찬가지로의 원리를 가지는데, 미개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름은 한 인물의 가장 중요한 부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정령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의 임자를 지배하려는 어떤 힘을 차지한 셈이다. 주술 사회에서 보이는 이름과 관련된 이상한 주의점들과 제약들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한편 이 원리에서 파생된 주술도 있다. 임신부에 대한 금기가 그것이다. 주술적인 일부 부족에서는 임신 중인 여자는 어떤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동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이, 예를 들어 겁쟁이 기질이, 그로 인해 태아에게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비유는 언어의 문제를 넘어 인간 사고의 인지적인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한 대상을 통하여 다른 대상을 환기(喚起)시키는, 즉 두 사물을 연결하여 인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사물의 인접성과 유사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유는 어떤 대상을 환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실재물을 사용한다. 환기되는 대상은 구체적인 수도 있으며 추상적인 수도 있다. ‘(a) 안경은 신이 났다, (b) 법은 미물(微物)들만 걸리는 그물이다’란 예시를 보자. (a)의 ‘안경’은 ‘안경을 쓴 사람’을, (b)의 ‘그물’은 ‘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안경을 쓴 사람’은 구체적이라 할 것이고, ‘법’은 추상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a)와 (b)는 중요한 다른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안경’은 환기하는 대상이 공간적으로 서로 접하여 있지만, ‘그물’은 환기하는 대상이 유사한 속성을 지닌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나 대상을 환기하여 듣는 이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상론해 보자. 비유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인접성이다. 이는 비유 과정에서 선택되는 수단으로서의 ‘매개체’와 이를 통해 이해의 대상이 되는 ‘목표’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매개체’는 보통 지각적으로 현저하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 실체로서 위 예 (a)에서 보이는 ‘안경’이 이에 해당하며, 이해의 대상이 되는 ‘안경을 쓴 사람’은 ‘목표’가 되는데, 이 둘은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 또 다른 핵심적인 자질은 유사성이다. (b)에 나타난 법과 그물은 원래는 서로 다른 개념들이다. 그러나 ‘법’이란 ‘목표’는 ‘그물’을 ‘매개체’로 하여 성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법을 이해하는 데 그물을 이용하는 것은 둘 사이에 개념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법의 속성은 그물을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되는데 그것은 ‘법’과 ‘그물’이 우리가 인지적으로 연결할 만한 공통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결국 이 두 원리를 주된 특성으로 하여 비유는 우리의 인지에 작동하며, 공감의 영역 또한 넓혀 간다.

2-1. 〈나〉의 개념 중 하나를 활용하여 〈가〉의 행위를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나〉의 ‘주술’과 〈다〉의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600±60자)